

해남 '블랑코 비치' 낭패

〈화원반도에 조성한 인공해수욕장〉

개장 1년만에 모래 쓸려 나가고 녹조현상... 폐쇄 할 수도

‘한국의 두바이’라고 자랑했던 해남 화원관광단지내 동양최대 ‘블랑코 비치’ 인공해수욕장이 여름에는 개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지난해 관광공사 측이 동양 최대의 인공 해수욕장이라 홍보했으나 수역위를 들여 깔은 모래는 쓸려 나갔고, 수질은 녹조현상까지 보이는 등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면서 개장 1년 만에 폐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

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화원면 주광리와 하봉리 일대 509만㎡에 조성 중인 화원 관광단지 내에 수중모래를 깔고 모래를 깔아 만든 길이 1km의 인공 해수욕장인 ‘블랑코(하얗다)’는 뜻의 스페인어) 비치 해수욕장’은 지난해 여름 처음 개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물 빠짐이 좋은 입자가 큰

모래 대신 빨이 많이 섞인 부적합 모래 13만㎡를 사용해 시커먼 빨물이 일어나는 등 개장 때부터 말이 많았던 이 해수욕장은 겨우내 방치되면서 모래를 개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군 관계자는 “모래는 바람에 날리고 유실돼 백사장 빨이 드러났고, 해수욕장 안에 돌과 빨과 모래가 뒤섞여 야외의 여건에 직면하면서 개장 1년 만에 폐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

까지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광공사와 협의해 개장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건이 최악이어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해남군과 협의조사 등을 거쳐 개장 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7월 화원관광단지 착공 14년 만에 첫 성과물로 이 해수욕장을 개장했지만, 개장 1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았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담양 죽로차 세계로 ‘竹竹’

‘2009 국제 차(茶)문화 대전’서 인기



담양 죽로차(竹露茶)가 전국 최대 규모의 차(茶) 전시회인 ‘2009 국제 차(茶)문화대전(TEA WORLD FESTIVAL)’에서 인기를 끌었다.〈사진〉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3~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회에 ‘대숲향 죽로차’ 시음 부스를 개설, 행사기간 동안 부스 방문객만 2천500여 명을 넘어섰고 1천만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체험 부스는 실제 기와와 벽돌을 서울로 수송, 창평면 삼지천 마을의 슬로시티 돌담길을 형성하듯 눈길

을 끌었다. 죽로차는 대나무숲에서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차나무에서 딴 잎으로 만든 한국 전통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2009 대구 세계 차문화 축제’에도 참여해 죽로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017@

‘놀토’엔 월출산으로 생태체험 떠나자

국립공원사무소 ‘공감! 남도문화 기행’ 운영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갑동)는 학생들이 상대로 노는 토요일에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월출산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23일부터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공감! 남도문화 기행’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토요일에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월출산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23일부터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공감! 남도문화 기행’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토요일에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갑동)는 학생들이 상대로 노는 토요일에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월출산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23일부터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공감! 남도문화 기행’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토요일에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화사기 사전예방

완도경찰 순회교육

완도경찰서(서장 김재석)가 전화금융사기 사전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9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과학적인 수사와 함께 사전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김재석 서장과 수사과장이 취약 지역을 돌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화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화사기 유형은 우체국을 사칭해 택배가 도착했다고 하면서 현금지급기 번호를 누르도록 하거나, 현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지급기 번호를 누르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됐다면 은행직원을 사칭해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김재석 서장은 “최근 완도 오지 섬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갯벌의 선물’ 바지락 캐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어촌체험 마을로서 연중 갯벌 체험이 가능하다.

지난 5일 보성군 득량면 선소 어촌체험마을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갯벌에서 바지락 등 각종 어패류를 캐고 있다. 선소마을은 2001년

〈보성군 제공〉

여수박람회 새 조직위원장 강동석 前장관 내정

“각종 비리 연루 부적격” 반발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이 2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동석(71)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지역여론이 반발하고 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권한대행 김병일 사무총장)는 지난 5일 인선 국제공항공사와 초대 사장 겸 건설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고려해 강 전 장관을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15일쯤 열리는 위원총회에서 최종 선출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역여론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 뇌물중개 혐의로 강 전 장관이 사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격

인사’라며 슬럼고 있다.

여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로 추진력을 겸비하고 여수 박람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이는 현 정부가 박람회에 대한 성공 개최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해남 울돌목 ‘뜯쳐 송어잡이’ 진풍경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지인 해남군 우수영 울돌목에서 거센 물살을 피해 가장자리로 올라오는 송어떼를 뜯쳐 잡는 진풍경이 올해도 어김없이 연출되고 있다.〈사진〉



해남 문내면정년회(회장 이후상)와 ‘울돌목을 사랑하는 사람들’(회장 김재철) 회원들은 지난 7일 울돌목 해남쪽 갯바위에서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능숙한 솜씨로 뜯쳐 송어를 건어올렸다.

뜯쳐 송어잡이는 겨우내 서해에 있던 송어들이 날이 풀리면 점점 남해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곳 울돌목이 송어의 이동경로여서 25년 전부터 지역민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송어를 잡아왔다.

지난 5일 초부터 시작된 송어잡이는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된다. 우수영 관광지 저자거리에는 막 잡은 송어를 구경할 수 있는 수족관이 있으며, 횡천 물살을 가르고 올라와 더욱 쫄깃한 송어회도 맛볼 수 있다.

김재철(43) ‘울사모’ 회장은 “올해 바다 수온이 낮아 송어 떼가 예년만큼은 못하지만, 하루 300마리까지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동광양농협 조합장에 서정태 전 상임이사

광양시 동광양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서정태(61·사진) 전 동광양농협 상임이사가 당선됐다.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서정태는 동광양농협 조합원 2천273표 가운데 1천599표를 얻어 654표를 득표한 정운선 현 조합장을 945표 차로 꺾었다. 임기는 오는 7월 16일부터이다.

서정태 당선자는 “먼저 흐트러진 조합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전국 최고의 조합을 만드는 데 앞장서 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출신인 서정태는 동광양농협 성황·태극지점장과 동광양농협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지역	소매지	면적(㎡)	건립가	최종가
전남	완도	동부아파트	112/34	1억3천
	완도	월남아파트	112/34	1억4천
	완도	대우아파트	122/37	1억1천
	완도	신원동	102/31	8천
	완도	신원동	112/34	1억1천
	완도	대우아파트	112/34	9천
	완도	대우아파트	102/31	8천
	완도	대우아파트	102/31	8천
	완도	대우아파트	102/31	8천
	완도	대우아파트	102/31	8천
전북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북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전주	신원동	102/31	8천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